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工學碩士 學位論文

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Space Composition Based on  
Changes in Functions of Public Library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조우리



# 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Space Composition Based on  
Changes in Functions of Public Library

지도교수 최 춘 응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조 우 리

조우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원장

박 소 현



부위원장

최 춘 응



위원

조 장 만





## 국 문 초 록

### 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조 우 리

지도교수 최 춘 응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기록의 저장,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지만 대중에게 개방됨으로써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저장 매체가 변화하였고, 보다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수용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개설하여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공간 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 대상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통하여 서울시립 남산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그리고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을 사례 대상관으로 정하였다. 각 대상관의 개관 초기부터 약 10년, 20년을 주기로 배치도를 분석하여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의 배치와 그 면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최초 공공도서관인 경성부립도서관을 전신으로 하는 남산도서관은 1965년, 1982년, 2002년, 그리고 현재의 배치도를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과 면적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료이용부분은 일부 업무관리부분으로 재구성되며 점차 축소되었고, 사회와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기능을 흡수하며 업무관리부분은 증가하였다. 문화교육부분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휴게실의 폐지로 공용부분 또한 축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의 지역대표도서관인 수원선경도서관의 경우, 증가하는 장서량을 수용하기 위한 보존서고의 확충과 기타 업무관리부분의 증가로 인해 자료이용부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문화교육을 위한 면적이 증가하며 문화교육부분도 증가했으나, 지하의 식당이 폐지되며 공용공간은 축소되었다.

대전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남산도서관과 선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자료이용부분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문화교육시설이 기존의 자료이용부분을 대체하며 개설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던 업무관리부분은 공간이 통합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은 없어졌지만 면적은 증가하였다.

이상 세 개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양상은 장애인 열람공간, 디지털자료실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인 자료이용부분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자료 저장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 새로운 공간의 개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다양한 업무를 수용하며 업무관리부분은 증가하였다. 또한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재배치는 휴게실과 같은 이용자 공용공간의 폐지를 초래했으나 전기실이나 기계실과 같은 기타업무시설은 면적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도서관의 공간은 사회적 인식, 이용환경, 이용자의 행태, 전산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같이하며 변화할 것이다.

---

주요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서울시립 남산도서관, 수원 선경도서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학 번: 2015-21121

# 목 차

■ 국문초록 .....	i
■ 목차 .....	iii
■ 표 목차 .....	v
■ 그림 목차 .....	vi
1. 서 론 .....	2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1.3. 연구의 제한점 .....	7
2. 도서관의 기능과 공간구성 .....	10
2.1.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10
2.2. 도서관의 공간구성 .....	14
2.3.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	20
3.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변화의 배경 .....	24
3.1. 사회적 인식 변화 .....	24
3.2. 이용환경 변화 .....	28
3.3. 이용자 행태 변화 .....	33
3.4. 도서관 전산화와 디지털 자료실 .....	35



4. 사례 대상관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와 현황 분석 .....	42
4.1. 사례 대상관 선정기준 .....	42
4.2. 사례 대상관 현황 .....	45
4.3. 대상관 분석 .....	44
4.3.1. 남산도서관 .....	51
4.3.2. 수원선경도서관 .....	60
4.3.3.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	67
4.4. 소 결 .....	77
5. 결 론 .....	80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6

## 표 목차

[표 2-1] 국내 도서관법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정의 비교 .....	11
[표 2-2] 공공도서관 시설 기준 .....	14
[표 2-3] 도서관의 소요 공간 구분 .....	15
[표 2-4] 주요 기관별 공공도서관 필요 공간 구성 기준 비교 .....	17
[표 2-5] 재구성된 도서관의 소요 공간 구분 .....	19
[표 3-1] 국내 도서관법 연혁과 도서관에 미친 영향 .....	38
[표 4-1] 분석 사례 대상관의 개요 .....	44
[표 4-2] 남산도서관 개요 .....	46
[표 4-3] 수원선경도서관 개요 .....	48
[표 4-4] 대전한밭도서관 개요 .....	50
[표 4-5] 남산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	54
[표 4-6] 남산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 <sup>2</sup> ) .....	58
[표 4-7] 수원선경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	63
[표 4-8] 수원선경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 <sup>2</sup> ) .....	66
[표 4-9] 대전한밭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	71
[표 4-10] 대전한밭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 <sup>2</sup> ) .....	76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방법 .....	6
[그림 3-1]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는 이용객 ..25	25
[그림 3-2] 독서실을 연상시키는 남산도서관의 열람실 .....	25
[그림 3-3] 문화시설 확충(컴퓨터교실) .....	26
[그림 3-4] 한밭도서관의 전시실 .....	26
[그림 3-5] 폐가제 서가에서 요청자료를 찾는 사서 .....	29
[그림 3-6] 요청받은 책을 해당 이용객에게 배분하는 모습 .....	29
[그림 3-7] 전면개가제로 변환 후의 모습 .....	30
[그림 3-8] 인건비 감축에 관련된 기사 .....	30
[그림 3-9] 남산도서관 반경 2km 안의 초등학교와 어린이 관련시설 ...32	32
[그림 3-10] 남산도서관의 이용자수 변화와 주요 요인 .....	34
[그림 3-11] 한밭도서관의 이용자수 변화와 주요 요인 .....	35
[그림 3-12] 남산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개설 .....	36
[그림 3-13] 자료이용 환경의 주요 변화와 분석 사례	
대상관에서의 대응 .....	39
[그림 4-1] 사례대상관 선정 과정 .....	43
[그림 4-2] 남산도서관 개관(1965) .....	45
[그림 4-3] 수원 선경도서관 개관 당시 모습 .....	47
[그림 4-4] 대전한밭도서관 전경(1990) .....	49
[그림 4-5] 남산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	57
[그림 4-6] 남산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	58
[그림 4-7] 남산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59
[그림 4-8] 선경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	65
[그림 4-9] 선경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	65
[그림 4-10] 선경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66

[그림 4-11] 한밭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	74
[그림 4-12] 한밭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	75
[그림 4-13] 한밭도서관 문화교육부분 면적 변화 .....	75
[그림 4-14] 한밭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76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대상) 및 방법

1.3 연구의 한계성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초기 도서관의 생성은 인류가 문화를 형성한 이래 각 사회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성립되었다.<sup>1)</sup> 바빌로니아 도서관이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같은 초기의 도서관은 고대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sup>2)</sup>, 생산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기능의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기록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왕실이나 귀족과 같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기록물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개는 지금까지 자료에 대한 보존 중심의 기능에서 접근과 이용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848년에 설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회원에 국한되긴 했지만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sup>3)</sup> 이후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즉 이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불리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도서관의 기능도 소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접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도서관은 시공을 초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인쇄매체 중심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의 출판,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도서관의 공간구성의 우선순위도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

1) 브뤼노 브라셀, 『책의 역사』, 시공사, 1999.

2) Roy MacLeod, 『The Library of Alexandria』, 2000.

3) 보스턴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www.bpl.org/general/history.htm](http://www.bpl.org/general/history.htm)

이용자와 디지털문화가 중심이 된 도서관은 과거 보존을 위한 서고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실과 같은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중심의 능동적 도서관을 지향하게 되었다. 과거 도서관의 기능이 스스로 찾아오는 이용자에 대한 수동적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최근에는 잠재적 이용자 또한 포용하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보존, 제공이라는 직접적인 업무 외에도 각종 문화, 교육 관련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이용자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서관은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와 서비스 요구 수준에 따라 기능의 복합화와 함께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공간구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도서관은 대부분 수집과 소장 중심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게 건설되었으며, 새로운 정보서비스 환경에 부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제한된 면적 안에서의 공간 배치가 재구성되기도 한다.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소장 자료를 단순히 제공하던 과거의 서비스와는 달리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에 있어서 공간 구성의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마다 기존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환경 변화가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공간 구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 변화가 도서관 공간 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사례 대상



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공간 구성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변경사항만을 확인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 배치와 면적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구성 시기의 비교 분석을 실행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보고 향후 연구와 도서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공간 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 대상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도서관은 비교적 규모와 설립 역사,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남산도서관, 선경도서관, 대진한밭도서관이다.

둘째, 선정된 도서관의 공간을 도서관별로 일정 기간의 간격을 설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공간 구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도서관 기능의 변화와 기능별로 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면적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만 출입구나 경비 등을 위한 기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공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별 과거의 공간구성 상황을 보여주는 설계도를, 그리고 현재의 공간 구성은 설계도와 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별로 분석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공간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리모델링하는 도서관을 위한 효율적 공간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분석을 위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국내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별 공공도서관에서의 공간 구성 기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의 바탕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변화해온 배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제 4장에서는 분석에 앞서 시대에 따른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변화를 비교, 분석 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현황을 기술하였다. 선정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대에 따라 기능별 공간의 위치와 면적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공간구성의 변화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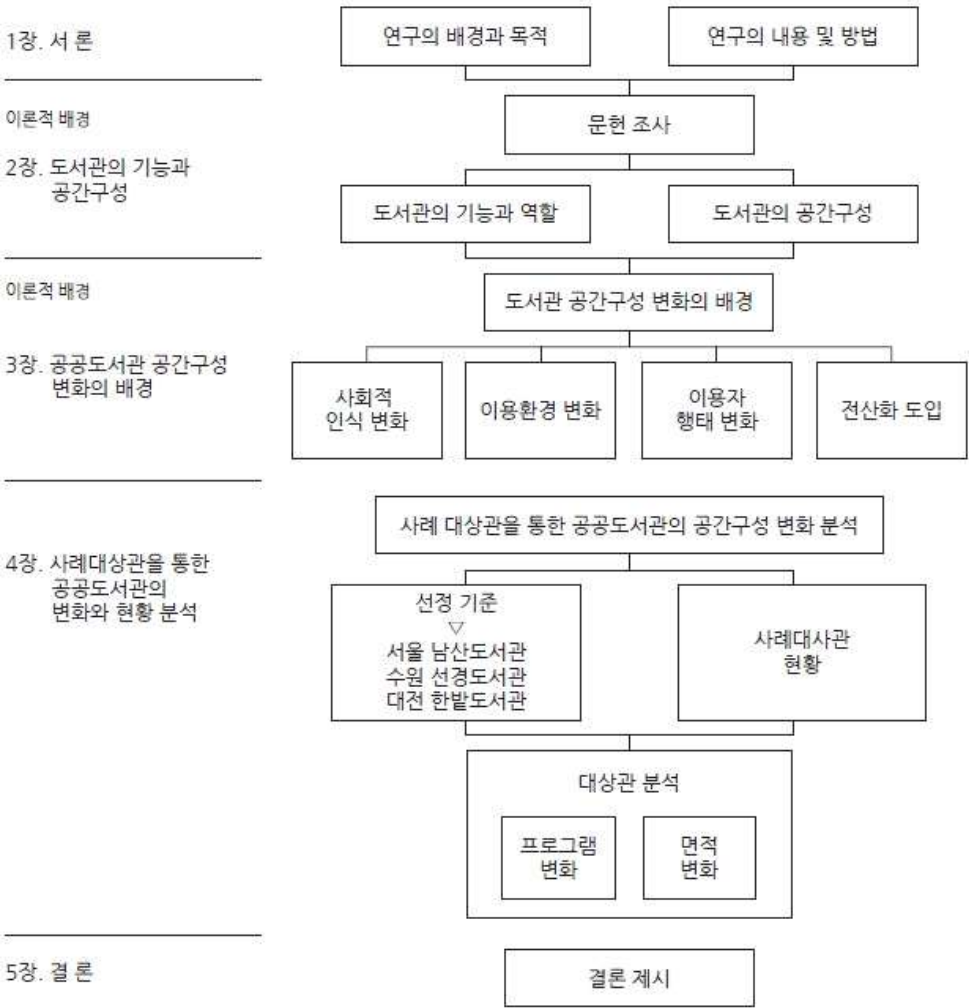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방법

### 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특정 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공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에는 약 1,000개에 이르는 공공도서관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3개의 도서관에 한정하여 공간 구성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로 일반화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최근 신축된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대한 조사 및 비교,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기존 도서관의 공간이 도서관의 기능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현재의 도서관 기능에 부합되게 건축된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는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 2. 도서관의 기능과 공간구성

2.1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2.2 도서관의 공간구성

2.3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 2. 도서관의 기능과 공간구성

### 2.1.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도서관법」 2조 4항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sup>4)</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센터, 문화활동센터, 평생교육지원센터,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나 살펴보면,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산하기구인 공공도서관협회(PLA, Public Library Association)의 기획보고서<sup>5)</sup>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자기교육을 계속하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은 1963년 법률 제1424호 「도서관법」(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법률 제3972호 「도서관법」(전부개정), 1991년 법률 제4352호 「도서관진흥법」(제정), 1994년 법률 제474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정), 2007년 제8029호 「도서관법」(전부개정), 2009년 법률 제9528호 「도서관법」, 2011년 법률 제10558호 「도서관법」, 2012년 법률 제11310호 「도서관법」, 2015년 법률 제13222호 「도서관법」 그리

4)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2009년 9월 26일 시행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14. Public Library Association Strategic Plan 2014-2017, 2014. pp. 3-4. [online] [cited 2016. 11. 9] <http://www.ala.org/pla/about/strategicplan>

고 2016년 제13960호 「도서관법」(타법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법의 명칭과 내용 또한 도서관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다. 시대별 도서관법에서 나타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시대별 도서관법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정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1963년 제정 「도서관법」에서는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1987년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교육·문화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도서관법」에서는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추가하고 있다.

표 2-1 국내 도서관법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정의 비교

법률 구분	세부 사항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년 제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도서관법 [법률 제3972호, 1987년 전부개정]	공중의 정보이용·교양·조사·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52호, 1991년 제정]	1987년과 동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년 제정]	1987년과 동일
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2006년 전부개정]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p>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2016년, 일부개정]</p>	<p>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p>
---	--

\* 일부개정을 제외한 전부개정 혹은 제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반적인 업무내용은 국내 도서관법에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28조에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②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③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④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 ⑥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⑦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또한 도서관의 책무는 「도서관법」 제43조 1항으로 3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 지역적 · 경제적 · 사회적 여건

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정의는 도서관법에 나타난 공공도서관의 업무와 책무에 기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3)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sup>6)</sup>은 크게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센터, 여가센터, 그리고 생활편의센터로서의 기능이다.

지식정보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유, 무형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수요의 증가로 모든 계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중개자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독서활동과 다원화 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기관으로서의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은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은 물론 물리적 시설과 공간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과 공간 또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3. p.9-10

## 2.2. 도서관의 공간구성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며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sup>7)</sup>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공간 구성은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공간 구성을 위한 기준을 「도서관법」시행령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그 시설기준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공공도서관 시설 기준

이용자 수*	시설			
	건물면적(m <sup>2</sup> )		열람석(좌석수)	
	법적 기준	권장 기준	법적 기준	권장 기준
2만 미만	264 이상		60석 이상	
2만 이상 ~ 5만 미만	660 이상		150석 이상	
5만 이상 ~ 10만 미만	990 이상		200석 이상	
10만 이상 ~ 30만 미만	1,650 이상		350석 이상	
30만 이상 ~ 50만 미만	3,300 이상		800석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석 이상	

\*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읍·면지역의 인구

7)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2016년 8월 4일 시행

이 기준에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건물면적과 이용자를 위한 열람석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용자 수에 따라 필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적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기준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부문별 구성요소와 공간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여기에는 도서관의 부분을 크게 주민이용부분과 자원봉사부분으로 구분하고 주민이용부분을 세분하여 열람부분, 참고 및 연속간행물부분, 서고부분, 대출부분 등의 7개 부분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부분은 사무 작업 및 직원용부분, 건물유지관리부분, 이동문고부분, 그리고 외부부분의 4개 요소로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3)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자료이용부분, 문화교육부분, 업무관리부분, 공용부분, 기타의 5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공간구성에 해당되는 세부 구분 및 공간 구성 요소는 다음의 표 <2-3><sup>9)</sup>과 같다.

표 2-3 도서관의 소요 공간 구분

구분	공간 구성 요소
자료이용부분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고문서자료실, 향토자료실, 주제별자료실, 장애인자료실

8)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p. 114.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2013, p. 53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이야기방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육부분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학습실, 연구실
업무관리부분	보존서고실, 귀중보존서고실, 이동도서관지원실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준비실, 탈의실, 숙직실, 자원봉사자실
	전산실, 방제실, 창고
공용부분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실
기타부분	기계실, 전기실, 창고, 주차장

해외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주 공공교육국(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기준<sup>10)</sup>에 따르면, 도서관 공간을 장서공간(Collection Space), 열람공간(Reader Seating Space), 업무공간(Staff Work Space), 세미나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Meeting Room Space), 특수목적공간(Special Use Space), 그리고 기계실과 같은 기타 공간(Nonassignable Space)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다.

Providence Associates Inc.와 Library Planner Consultants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간을 장서공간(Bookstacks), 열람공간(Seating), 업무공간(Staff Work Space), 그리고 기타 공간(Other Items)으로 구분하고

10)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9. Public Library Space Needs: A Planning Outline / 2009. p. 3. online. [cited 2016. 11. 9] <http://dpi.wi.gov/sites/default/files/imce/pld/pdf/plspace.pdf>

공간별 최소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구성 기준<sup>11)</sup>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공공도서관을 위한 필요 공간 구성 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주요 기관별 공공도서관 필요 공간 구성 기준 비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위스콘신 공공교육국	호주 NSW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용부분 (열람부분 등의 7개 부분)</li> <li>- 지원봉사부분 (사무공간 등의 4개 부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이용부분</li> <li>- 문화교육부분</li> <li>- 업무관리부분</li> <li>- 공용부분</li> <li>- 기타부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서공간</li> <li>- 열람공간</li> <li>- 업무공간</li> <li>- 프로그램운영공간</li> <li>- 특수목적공간</li> <li>- 기타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서공간</li> <li>- 열람 및 학습 공간</li> <li>- 사무공간</li> <li>- 문화적 공간</li> <li>- 선택적 공간</li> <li>- 비품공간</li> </ul>

국가별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된 명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용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공간은 열람공간, 장서공간, 업무공간, 문화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공간은 도서관이 이용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변화나 요구에 따라 특정 공간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공간구성 자체의 변화보다는 용도에 따른 공간의 위치나 넓이, 명칭 변화 등의 세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공간에서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확보되어야 할 공간과 현재의 공간을 확대하여야 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sup>12)</sup>를 수행하였다. 이용자 대

11)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Library buildings and spaces. online [cited 2016. 11. 9]  
<http://www.sl.nsw.gov.au/public-library-services/library-buildings-and-spaces>

상 조사결과 확대 대상 공간은 어린이·청소년열람실, 지역정보실, 휴게실, 컴퓨터(인터넷이용)실, 전시공간, 그리고 주차공간 등이었으며, 새롭게 확보되어야 할 공간은 컨퍼런스 룸, 개인지도 학습실(Tutoring Room), 자유학습실(Quiet Study Room), 그리고 컴퓨터교육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요구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경영의 3대 요소인 장서,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부분을 제외하고 공간구성 도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업무관리부분에 해당되는 전산실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자료실과 컴퓨터 사용의 도래로 추가된 공간임을 고려하여 디지털자료실과 연계된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부분에 해당하는 교육부분과 문화부분은 공간의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여 하나의 공간체계로 통일하였으며, 재구성한 공간 구성의 구분 기준은 다음 <표 2-5>와 같다.

---

12) Stanford University Library. 2000. Public Library Space Needs and Alternatives Study. p. 6

표 2-5 재구성된 도서관의 소요 공간 구분

구분		공간 구성 요소
자료이용부분	자료, 열람	일반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고문서자료실, 향토자료실, 주제별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이야기방
	디지털	디지털자료실, 전산실
문화교육부분	문화교육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학습실, 연구실
업무관리부분	서고	보존서고실, 귀중보존서고실, 이동도서관지원실
	사무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준비실, 탈의실, 숙직실, 자원봉사자실
공용부분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실



## 2.3.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국내 공공도서관은 2000년을 전후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정보혁명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sup>13)</sup> 이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설립의 양이 급격하게 팽창하였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곽철완(2005)<sup>14)</sup>은 공공도서관의 이용목적, 도서관 내 활동, 연령 등의 요인이 도서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기능별 공간 비율 결정과 공간 배치에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고흥권(2013)<sup>15)</sup>은 2000년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변화에 주목하고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였다. 김우영(2002)<sup>16)</sup>은 정보양식의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김희정과 이정수(2009)<sup>17)</sup>는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자료실을 수용함에 따른 실질적인 공간변화의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공간구성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김정희(2007)<sup>18)</sup>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복합화 되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고재민 외(2015)<sup>19)</sup>는 200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의 소요시설별 면적 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에 따른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나 이러한 변화

---

13) 고흥권, 「公共圖書館 스페이스프로그램의 模型 提案 研究: 2000년 이후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3

14) 곽철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49-167, 2005

15) 고흥권, 이전인용

16)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는 문, 서울대학교, 2-4, 2002

17) 김희정, 이정수, 「디지털 자료 활용실 수용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8), 91-98, 2009

18) 김정희,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7

19) 고재민, 조현양, 고흥권, 「도서관 소요공간에 따른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6(3), 349-379, 2013

가 실제 도서관의 배치도 상에서 어떻게 작용해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의 공간이 변화되는 배경과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도서관의 평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례 대상관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 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효율적 공간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3.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변화의 배경

3.1 사회적 인식 변화

3.2 이용환경 변화

3.3 이용자 행태 변화

3.4 도서관 전산화와 디지털 자료실

### 3.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변화의 배경

국내 공공도서관은 1900년대 초반 지역별 거점도서관의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 지역 간 정보격차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역별 도서관의 설립은 2015년 12월 기준 총 978개관이라는 양적 성과를 일궈내었다.<sup>20)</sup>

공공도서관은 단기간에 법과 제도, 매체의 특성,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의 변화<sup>21)</sup>에 부응하여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도서관의 공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장에서 그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 3.1. 사회적 인식 변화

국내 도서관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그리고 2006년 「도서관법」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도서관법인 1963년 「도서관법」의 의미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을 육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운영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sup>22)</sup>로 명시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공도서관의 전담부서였던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국민의 교육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반면에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이자 국민을 위한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위치 확대를 추구하는 현재의 도서관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을 문화적 시설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교육시설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도서

2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2016

21) 조우리, 최춘웅.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36(2), 284-285, 2016

22)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년 11월 28일 시행

관은 이용자에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과 같은 자습 공간으로 존재하였으며<sup>23)</sup>, 이용자들은 도서관 시설, 즉 자기학습 공간 이용에 따른 입관료를 부담하였다.



그림 3-1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는 이용자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그림 3-2 독서실을 연상시키는  
남산도서관의 열람실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상황은 그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과거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독서실 전략, 도서관을 살리자’<sup>24)</sup>, ‘초라한 공공도서관 서가...독서실 전략’<sup>25)</sup> 등 도서관이 개인의 자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개정 「도서관법」은 1963년 동법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권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그리고 공공도서관 예산의 지원과 보조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규정으로 강화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증설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또한 선행 법에 명시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입관료와 사용료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특수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발효로 도서관이 시도별로 설립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3)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p. 62-63

24) 「한겨레신문」, 1994.11.09

25) 「동아일보」, 1998.01.19

1991년의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의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도서관 정책의 전담부서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부에서 입법제안을 하게 되었다. 1963년 법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국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보다 확대하여 지식의 제공 및 유통은 물론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정보제공기능은 물론 문화적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새롭게 부여된 것이다.



그림 3-3 문화시설 확충(컴퓨터교실)

출처: 『한밭도서관 20년사』



그림 3-4 한밭도서관의 전시실

출처: 『동양뉴스통신』

1994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은 국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이 국민 독서 증진에 필요한 책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이 독서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자료를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2006년 「도서관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서관이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이자 국민을 위한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의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지역간 혹은 세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장소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서는 매 5년마다 국가차원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원 하에 광역단위의 지자체별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sup>26)</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2년도의 「도서관법」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구체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개별 도서관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다음,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결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이를 법에 명시하여 다른 도서관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 하나가 대전 한밭도서관이다. 한밭도서관의 경우 건립 당시 다양한 구미의 공공도서관 선진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반하여 건립 초기부터 시각장애인실을 포함하였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자와 실버계층을 위한 전용실인 3층의 청록실을 구축하였다. 이후 2010년도에도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며 꾸준한 변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계층을 수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남산도서관과 수원선경도서관은 정보이용격차의 해소와 소외 계층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도서관관련 법은 도서관의 기능과 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자율적 학습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1987년 개정 「도서관법」을 통한 ‘도서관 시설 및 건립의 의무화’ 함으로써 도서관을 사회적 시설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1991년의 「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사회 각

---

26)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2016.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사회적 기능은 물론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년의 「도서관법」에 나타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이자 국민을 위한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의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장소'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간 구성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법의 연혁과 공공도서관의 공간에 미친 영향을 이 장의 마지막에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 3.2. 이용환경 변화

도서관의 이용환경은 그 내부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의 요인 중 하나로 관내의 열람제도의 운영방식 변경을 꼽을 수 있다.

과거의 공공도서관은 서가를 열람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고 사서나 관계자만이 자료에 접근하고 절차에 따라서 책을 이용자에게 대출해주던 폐가식 서고(close stack)로 운영되었다. 폐가식 서고의 운영은 책의 분실이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책의 활용보다는 보존에 더 치중을 했으며, 이용자보다는 자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인쇄술과 출판문화가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에는 책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책은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 당시 한국의 도서관들은 부족한 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더욱 애를 썼다.<sup>27)</sup>

폐가식 서고의 운영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다. 폐가제 서고는 직원만이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서가의 간격이 지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좁

27) 강예린, 이치훈, 『도서관 산책자』, 반비, 2012.

았다. 이용자는 사서로부터 책을 전달받아 관내에서만 열람을 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통하여 관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관내에서 자료를 보기 위한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림 3-5 폐가제 서가에서 요청자료를 찾는 사서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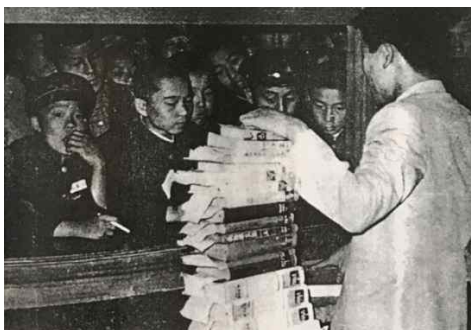


그림 3-6 요청받은 책을 해당 이용객에게 배분하는 모습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도서관 자료에 대한 관리 중심에서 자료 제공과 같은 이용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도서관은 소장 자료를 이용자에게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개가제 서고(open stack)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가제 서고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서고를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운영방식이다. 서고와 자료열람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고 중간에 열람용 책상을 비치하여 서가와 가까운 곳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다.

도서관에서 개가제 서고의 운영을 촉진한 또 다른 계기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이다. 도서관에서의 자료 배치에 이용자들이 익숙해지고, 사서들은 도서관 자료의 이용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에 투입되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감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1979년부터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던 자료이용방법을 완전 개가제로 전환하였다. 과거 폐가제 서고의 서가가 좁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개가제 서고는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3-7 전면개가제로 변환 후의 모습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이러한 개가제 서고 전환 양상과 더불어 열람공간의 대규모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폐가제 서고 운영으로 인해 사서에게 책을 전달 받아 정해진 열람공간에서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용자가 직접적인 자료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공간이 개방되며 사서 및 직원을 열람공간의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인력 활용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나 1997년 IMF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임금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안이 제시된 이후,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내년 인건비 20% 감축”

전경련·경총 근로자파견제 조기도입 촉구

**장종화 기자**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경련 기조심장회의는 장드와 총재의 “재발해제” 발언은 와전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경총은 이날 오후 집권호황에서 확대 의장단회의를 열고 내년

임금협상에서 인건비를 20% 가량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장단이 현재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임금인상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령제 비상대책”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비상대책”에서 고용조정과 복지성 노동비용, 상여금 등을 감축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기업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존중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업 인수·합병 때와 신상기업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전체의 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고 능력·성과 위주의 임금관리방식인 직능·직무급 제도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상임자 구제 등 고용안정을 위해 회장단은 경제5단체, 학계,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고용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보험 누적기금 1조8,000억원 중 9월 말까지 지출분이 950억원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에 보다 적극 활용되도록 정부에 국채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림 3-8 인건비 감축에 관련된 기사  
출처: 『매일경제』, 1997.12.04.

이는 도서관에도 적용되는 사항이었으며, 분산된 공간을 통합하고 대

규모화함으로써 보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한밭도서관 또한 개관당시 대출실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직원이 찾아주어 관내 열람이 가능한 폐가제로 운영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7월 22일부터 전면 개가제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공간의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보존과 이용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공간의 확대와 이용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도서관으로서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도서관의 주변을 조사해본 결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1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남산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열람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 남산에 어린이 회관, 남산 어린이 놀이터, 새꿈 어린이 공원 등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이에 따른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을 설치하지 않았던 주요 요인으로서는 자유학습실 중심의 운영과 부족한 열람 공간 등을 들 수 있다. 남산도서관은 그 당시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용 계층과 관계없이 열람실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9 남산도서관 반경 2km 안의 초등학교와  
어린이 관련 시설

### 3.3. 이용자 행태 변화

1991년 새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입관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도서관 무료 입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도서관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도서열람표를 교부받아 열람실 좌석표로 사용하거나 자료실 열람표로 사용하였다. 입관료의 폐지는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79년 정독도서관의 개관으로 1980년부터는 감소하였다.<sup>28)</sup>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역 내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하면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가 분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산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개인 연구를 위한 개인 연구실을 2층과 3층에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는 특수 연구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었다. 이 공간은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을 위한 국내 도서관 가운데 유일하게 제공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사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특별연구실을 집단행동과 시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폐실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 연구실은 비좁았던 간행물 서고 공간으로 활용하여 간행물 제본도서를 보관하게 되었다.<sup>29)</sup>

1990년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 중심의 밀집 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당시 외곽지역이었던 고척, 중계, 목동, 동작 등 서울지역에 대표적 공공도서관 개관이 이어졌다. 2000년에 들어서며 각 지역의 구립도서관 개관으로 이용자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는 개별 도서관의 평균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sup>30)</sup>

28) 『남산도서관 80년사』, 남산도서관, 2002, p.235

29)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p.317

30)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p.310



그림 3-10 남산도서관의 이용자수 변화와 주요 요인

일시적이긴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당시 경제의 침체와 취업난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수원 선경도서관 또한 외환위기의 시기에 남산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전례 없는 이용객의 급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이용객에 대응하여 선경도서관은 1999년에는 1층 전시실 자리에 취업정보 자료실을 개설하였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수험정보 제공서비스를 별도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따라 3층 5개 열람실의 운영 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제로 변경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였다. 이 시기는 외환위기 등으로 실업자, 취업준비자,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문화 욕구 또한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2년 후, 이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과 비효율적인 도서관 인력 운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운영 시간을 축소하였다.<sup>31)</sup>

인터넷 사용의 보급화 또한 이용객 감소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이 더 이상 문헌정보의 유일한 제공처로써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

31) 『선경도서관 20년』, 수원선경도서관, p.96

한 정보서비스의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용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화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요구증가와 함께 이용객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한밭도서관의 경우, 개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이용자가 1994년 이후 대덕구, 갈마, 유성도서관 등이 개관을 하며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였다. 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나 디지털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추진과 대전 내의 도서관이 다수 개관하면서 이용자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거점으로 각종 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를 전개하며 지역문화센터로서 거듭났으며, 이는 꾸준한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였다.



그림 3-11 한밭도서관의 이용자수 변화와 주요 요인

### 3.4. 도서관 전산화와 디지털 자료실

1980년대 대학도서관을 시작으로 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전산화가 시작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업무전산화 작업을 위한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에 들어서 공공도서관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 자료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전자정보실이라는 명칭으로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였으나, 실제 제공 가능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2000년 1월 30일 KBS 뉴스에서 전국에 있는 국·공립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들이 정보화 시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2000.12.28) 수립과 더불어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에 정보기와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이 확대되었다.



그림 3-12 디지털자료실 개설  
출처: 『남산도서관 80년사』

2000년 2월 1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계기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교육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sup>32)</sup>

이 사업을 통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전체에 도서 이외의 형태로 발행되거나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32) 『정보화특별교육교재』, 국립중앙도서관, 2000

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과 일부 학교 도서관, 문고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며, 국가내 각종 도서 및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이 도서관과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8개 도서관이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를 시행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sup>33)</sup>

선경도서관에는 2002년 전자정보자료실과 음향자료실을 통합하여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였다. 대전 한밭도서관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정보센터를 2002년에 만들었다. 도서관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기의 도입과 인터넷 및 디지털 자료의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

33)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ndli/index.jsp?LOGSTATUS=notok&NLSSOTOKEN=>

법률구분	공공도서관 정의	변화요인	주요사항	공공도서관에 미친 영향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년, 제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 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을 육성하고, 국 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자 료를 수집·보존·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 국민 교육의 기능에 초점	*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자료 이 용 공간이 아닌 개인 자습 공간으로 인식
도서관법 [법률 제3972호, 1987년, 전부개정]	공중의 정보이용·교양·조사·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도서관의 개념을 이전의 소극적인 기능 수행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의 제공,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인 기능수행으로 확대 *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역 할 수행을 위한 도서관의 구분 및 제도 개 선의 요구	* 공공도서관의 설치 의무화, 제 도적 강화	* 지역 구립 공공도서관 대거 개관 (고척, 중계, 목동, 등작 등)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52호, 1991년, 제정]	1987년과 동일	* 도서관이 교육적 기능 외에 각종 문화시 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수권의 신 장 요구 *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 국민 교육의 기능에서 문화발 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	* 도서관의 문화교육 기능이 추가되 며 전시실, 강의실과 같은 프로그램 개설 * 입관료 무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년, 제정]	1987년과 동일	*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의 시설 및 독 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의 요구 * 독서 기회 확대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 구	* 독서 증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자료의 확충, 열람제도의 변화
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2006년, 전부개정]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 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 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 의 문화 체험,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 요 구 * 지식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정보격 차 해소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 요구 *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틀의 구축	* 도서관의 지식 정보격차 해소 책무 추가 *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 도서관의 국민 교육문화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 추가	* 장애인열람실과 같은 지식정보 취 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2016년, 일부개정]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 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 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 는 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 서관의 범주의 명확한 정의 요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 선 보완 요구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보 다 명확히 명시 * 공공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	-

표 3-1 국내 도서관법 연혁과 도서관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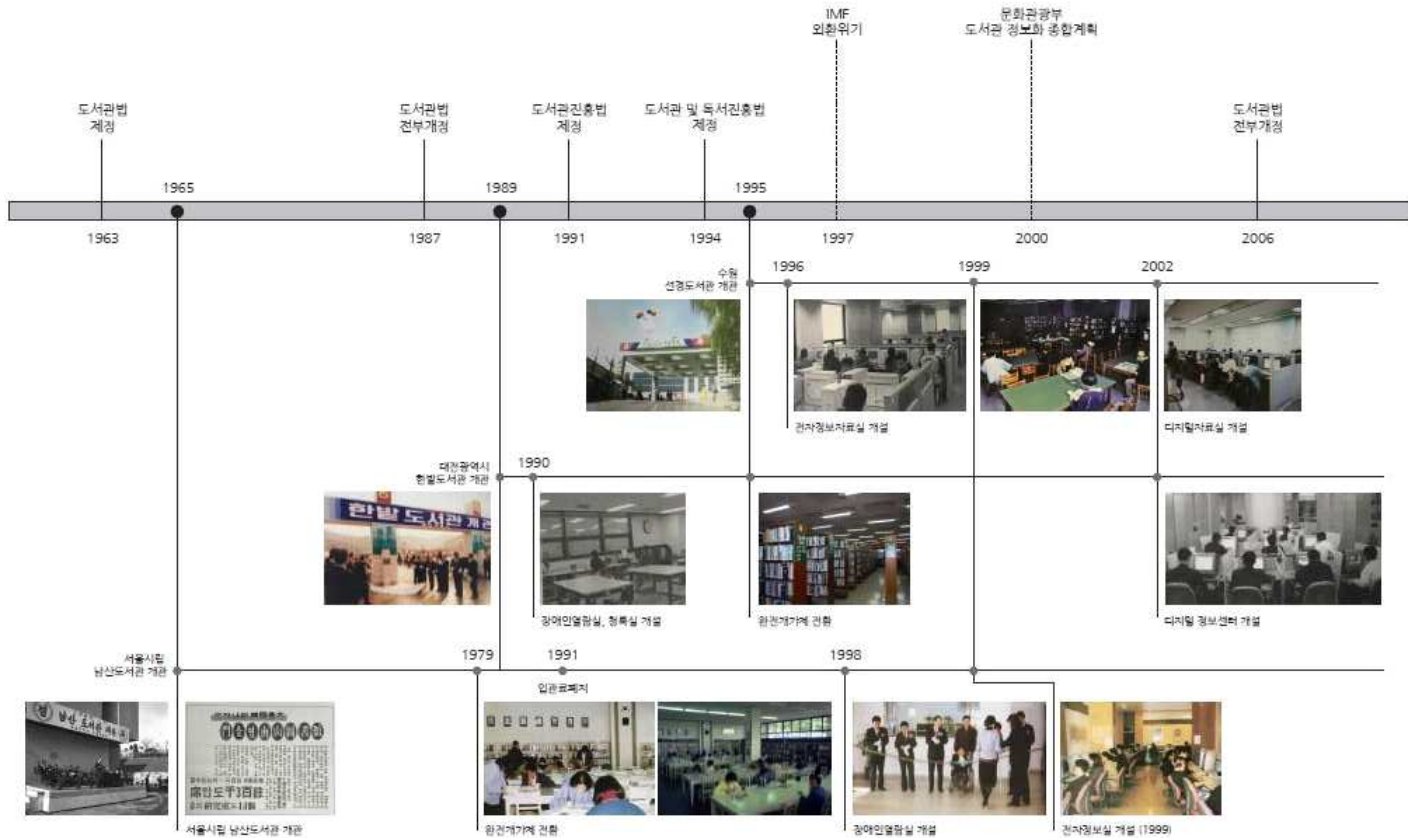


그림 3-13 자료이용 환경의 주요 변화와 분석 사례 대상관에서의 대응



## 4. 사례 대상관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와 현황 분석

4.1 사례 대상관 선정기준

4.2 사례 대상관 현황

4.3 대상관 분석

4.4 소결

## 4. 사례 대상관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와 현황 분석

### 4.1. 사례 대상관 선정기준

앞선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변화와 그에 따른 배치, 면적, 공간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러한 변화를 겪고 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약 1,0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운영 중에 있다. 모든 도서관은 각각의 역사와 해당 지역에서의 역할이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사례 대상관 선정기준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내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도서관이어야 한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총 16개의 지역대표도서관이 있다.<sup>34)</sup> 선정 대상은 지역대표도서관 16개관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본래 도서관을 목적으로 건립된 도서관이어야 한다. 국내의 공공 문화시설은 기부채납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설계 단계에 건물의 사용 용도가 미정이었다가 추후에 용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이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sup>35)</sup>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분석의 중심에 있는 만큼, 초기 건립 목적이 도서관인 건물로 제한하였다.

34) 김홍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0(1), 115-132, 2009

35)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서울의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의 경우, 과거 서울 시청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분석 대상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면적 8,000m<sup>2</sup>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설정하였다.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도서관 중에서도 공간구성의 충분한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개관 20년 이상이 된 도서관으로 대상을 줄였다. 또한 동시대에 지어진 도서관은 당대의 설계 추세에 비슷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1960-75년, 1975-90년, 그리고 1990-2005년 사이에 건립된 도서관을 각 1개관씩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례대상관 선정기준과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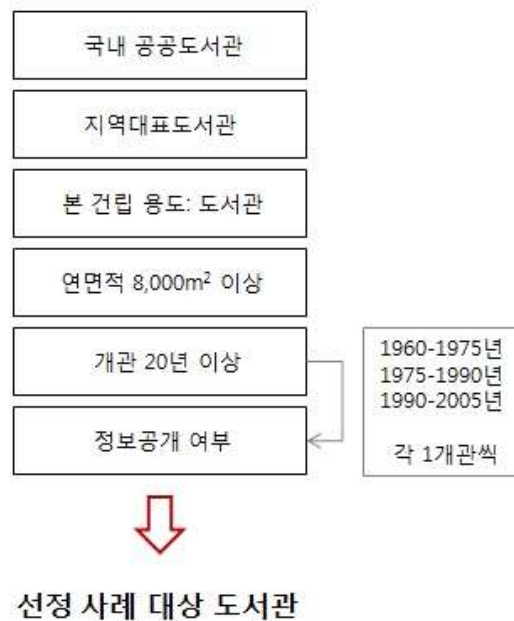


그림 4-1 사례대상관 선정 과정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최초 공공도서관인 경성부립도서관이 전신인 서울의 남산도서관과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인 수원시 수원선경도서관,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한밭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3군데의 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 분석 사례 대상관의 개요

개관년도	지역	도서관명	연면적(m <sup>2</sup> )	대지면적(m <sup>2</sup> )	지하	지상
1964	서울	남산도서관	9,409	9,409	-	5
1995	경기	수원선경도서관	8,312	11,830	1	3
1989	대전	대전한밭도서관 (분관제외)	19,079	19,703	2	4
			3,366			

## 4.2. 사례 대상관 현황

### 4.2.1. 남산도서관



그림 4-2 남산도서관 개관(1965)

출처: 국가기록원

남산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인 1922년, 3·1운동 이후 교육, 문화면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변화가 일기 시작한 때에 설립되었다.<sup>36)</sup> 남산도서관은 경성부립도서관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명동의 구 한성병원의 건물에 개관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첫 공공도서관인 경성부립도서관은 1927년 중구 소공동으로 건물을 이전하고 이듬해에는 중구 소공동에 신관을 준공하였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승격하며 도서관의 명칭 또한 서울시립 남대문도서관이라고 개칭하였다.<sup>37)</sup> 그리고 1965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남산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36)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2002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변천』, 2000, pp. 32

을 신축하여 개관하였다. 남산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이전까지 국내 대표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sup>38)</sup> 본 건물은 지상 5층의 건물로 연면적 9,409m<sup>2</sup>, 대지면적 13,316m<sup>2</sup>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간구성별 면적을 살펴보면 자료이용부분 2,933.7m<sup>2</sup>, 업무관리부분 1,682.2m<sup>2</sup>, 문화교육부분 281.16m<sup>2</sup>, 공용부분 468.56m<sup>2</sup>, 그리고 기타부분 4,154.04m<sup>2</sup>이다. 남산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그리고 기타 문화교육부분에서 총 1,373개의 좌석을 마련하였다. 장서량은 일반도서 494,835, 연속간행물 1,132, 비도서류 15,448권을 보관, 제공하고 있다. 위의 현황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4-2 남산도서관 개요

개관년도		1965년
위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장서량 (도서)		494,835
실수/좌석수		17/1,373
대지면적(m <sup>2</sup> )		13,316
연면적(m <sup>2</sup> )		9,410
부 분 별	자료이용부분	2,933.7
	업무관리부분	1,682.2
	문화교육부분	281.16
	공용부분	468.56
	기타부분	4,154.04
규모		지하-/지상5층

38)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2002

#### 4.2.2. 수원선경도서관



그림 4-3 수원 선경도서관 개관 당시 모습  
출처: 동아일보, 「水原 선경도서관 개관」, 1995

수원선경도서관은 옛 수원지방법원 자리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이다. 1993년 선경그룹(현 SK그룹)이 수원 화서문 성곽의 안쪽에 연면적 8,312㎡에 해당하는 본 도서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그 이후, 지역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서관법에서 제시한 후,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본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연면적 8,312㎡과 대지면적 11,830㎡의 규모를 하고 있다.<sup>39)</sup>

공간구성별 면적으로는 자료이용부분 3,082㎡, 업무관리부분 1,739.74㎡, 문화교육부분 495.73㎡, 공용부분 852.5㎡, 그리고 기타부분 2,142㎡이다. 수원선경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그리고 기타 문화교육부분에서 총 904개의 좌석을 마련하였다. 장서량은 일반도서 416,344, 정기간행물 353, 비도서류 23,299를 보관, 제공하고 있다. 위의 현황을

39) 수원선경도서관, 이전인용, p. 47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4-3 수원선경도서관 개요

개관년도		1995년
위치		수원 팔달구
장서량 (도서)		416,344
실수/좌석수		12/904
대지면적(m <sup>2</sup> )		11,830
연면적(m <sup>2</sup> )		8,312
부 분 별	자료이용부분	3,082
	업무관리부분	1,739.74
	문화교육부분	495.73
	공용부분	852.5
	기타부분	2,142
규모		지하1층/지상3층

### 4.2.3.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그림 4-4 대전한밭도서관 전경(1990)

출처: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20년』, 2015, p.18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충청남도민의 숙원사업으로 1984년 건립계획을 시작으로 1989년 준공, 개관하였다.<sup>40)</sup> 한밭도서관은 보문산 아래 경사진 대지에 자리 잡아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용하기 위한 강당과 전시실을 포함한 별관이 1992년 준공되었다. 2007년 새로운 도서관법 제정으로 한밭도서관이 대전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대지면적 19,703m<sup>2</sup>, 연면적 19,079m<sup>2</sup>(본관), 3,366m<sup>2</sup>(분관)의 대규모 도서관이다.<sup>41)</sup>

공간구성별 면적으로는 자료이용부분 7,041m<sup>2</sup>, 업무관리부분 3,804.56m<sup>2</sup>, 문화교육부분 913.38m<sup>2</sup>, 공용부분 2,025m<sup>2</sup>, 그리고 기타부분 5,295.06m<sup>2</sup>이다. 한밭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그리고 기타 문화교육부분에서 총 3,130개의 좌석을 마련하였다. 장서량은 일반도서 797,566,

40) 정식 명칭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이나, 이후 한밭도서관이라 칭한다.

41)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20년사』, 2010, p. 54

연속간행물 734, 비도서류 59,584를 보관, 제공하고 있다. 한밭도서관의 현황은 다음 <표4-4>와 같다.

표 4-4 대전한밭도서관 개요

개관년도		1989년
위치		대전 중구
장서량 (도서)		797,566
실수/좌석수		23/3130
대지면적(m <sup>2</sup> )		19,703
연면적(m <sup>2</sup> )		19,079(본관)
부 분 별	자료이용부분	7,041
	업무관리부분	3,804.56
	문화교육부분	913.38
	공용부분	2,025
	기타부분	5,295.06
규모		지하1층/지상3층

## 4.3. 대상관 분석

### 4.3.1. 남산도서관

#### 가. 프로그램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본래 도서관의 용도로 지어진 현재의 후암동 남산도서관 개관을 기준으로 하여 1965년부터 약 20년을 주기로 1965년, 1982년, 2002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배치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1965년 남산도서관이 신축 개관했을 당시, 1층은 주로 공간 구성의 기타부분에 해당되는 변전실, 보일러실과 같은 관리, 지원시설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82년에는 식당과 주방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본래 2층에 위치해 있던 식당은 여자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이 인접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열람실 이용객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1층으로의 이동은 매우 적합했다. 2층의 기존 식당 자리는 여자열람실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변 자료실과 상호 연계성이 더욱 긴밀해졌다.

남산도서관에서는 장애인용 특수 자료와 지식정보취약계층<sup>42)</sup>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월, 1층 일간신문 브라우징 코너에 장애인코너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일간신문코너는 간행물실로 이동하였으나 2001년 6월, 도서관 현관 정비 공사로 인해 장애인실 자료를 간행물실 내부로 옮겨 장애인코너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책상 1개, 좌석2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컴퓨터 한대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강당이 1986년 상설전시실로 변경된 후, 2001년에는 남산도서관의 본래 명칭인 목멱산을 살려 목멱전시실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전시

---

42) 지식정보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실로 개칭되어 사용되고 있다.<sup>43)</sup>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전시실은 도서관 입구의 현관, 홀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44)</sup> 이는 자료이용부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고 다수의 이용객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시실(기존 강당)의 위치는 적합하며, 개관 이래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1965년 개관 당시와 1982년도의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서관 시설관리 직원을 위한 공간이 적지 않다는 부분이다. 1965년도 1층에는 청부숙직실, 청부휴게실, 목욕실, 수위실, 숙직실과 같은 직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었고, 82년도에는 수위실만 창고로 변경되고 나머지 공간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2000년도에는 이러한 공간들이 모두 창고나 사무실의 용도로 변경되었고, 이는 인건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도서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추세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본래 2층에 위치해있던 식당과 주방이 1층으로 이동된 후, 해당 공간은 여자열람실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같은 자리에 전자정보실이 개설되며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역할이 강화되고 이용객의 정보화 욕구가 커짐에 따라, 여타 다수의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남산도서관도 이에 맞는 대응을 한 것이다. 전자정보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저층부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간행물실은 1988년 발코니를 개조하여 확장하며 연속간행물실이 되었다가 현재 일반열람실로 바뀌었고, 같은 층에 위치했던 개인연구실(1)<sup>45)</sup>로 사용되던 공간은 현재 서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정보실에 인접한 연속간행물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연구실(2)는 현재 학교도서관지원과로 변경되

---

43)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2002

44)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인용, p. 53.

45) 남산도서관 배치도 상에는 개인연구실(1), (2)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각 공간이 추후에 다른 기능으로 변화되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자가 번호를 부여하였음.

어 사용중이다. 개관시에는 없었던 청소인 휴게실이 1982년도 배치도 상으로 각 층에 추가되었다가 추후에는 모두 창고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문고 사무실은 이전에 열람과장실로 사용되고 있던 공간으로 옮겨졌으며, 그 자리에는 취업정보코너가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발코니는 몇 번의 개조, 보수를 통해 목책휴게실로 변경되었으며 시청각실과 시청각재료실(사무실)은 개관 이래도 큰 변화 없이 그 위치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남산도서관의 열람실과 자료실은 주로 3, 4, 5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공간의 상호 위치관계를 가깝게 배치하여 이용자와 직원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편의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3층의 제1열람실은 현재 어문학실로 변경되었고, 휴게실이었던 공간은 일제 강점기의 내각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석박사학위 논문집, 각종 통계자료 등을 비치한 특수자료실로 사용되었다가 문화활동지원과 사무실로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또한 사회과학실은 일반열람실2로 변경되었고 개인연구실은 폐지된 후 창고로 사용되었다가 일반열람실1로 바뀌었다. 이로써 같은 층의 주변 프로그램들인 어문학실과 제2열람실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4층에 위치했던 일반열람실인 제2열람실과 제3열람실은 1979년부터 완전개가제로 주제별 자료열람실을 개실하며 현재 인문, 사회자료실과 자연과학자료실1로 변경되었다. 휴게실 또한 자연과학자료실2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관 당시에 3, 4층에 위치해 있던 휴게실이 현재 사무실과 자료실로 변경된 것은 도서관에 기능이 추가되고, 그 역할이 다양해져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과 증가하는 장서를 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일 것이다.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5층의 제4열람실은 현재 일반열람실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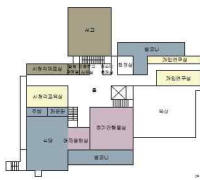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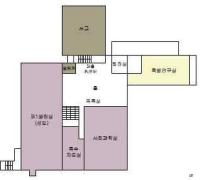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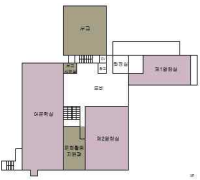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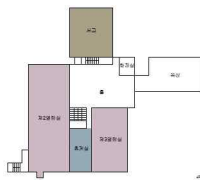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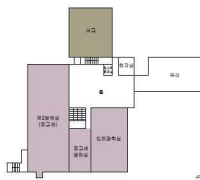

46) 남산도서관, 이전인용

상담실 겸 회의실, 그리고 일반열람실5로 분할되어 그 용도를 세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열람실은 일반열람실3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층의 자료실에 인접해 위치했던 열람실들을 5층에 집중하여 배치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자와 분리시켰다. 이를 통해 열람실의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유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부터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서고를 확보하여 설계된 남산도서관은 타도서관에서 많이 보여지는 서고의 면적이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개관 당시의 배치도에서는 3층부터 5층까지 열람실이 주를 이룰 정도로 열람실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러나 점차 열람실의 면적이 줄어들고 주제별 자료실을 포함한 자료실이 증가함을 배치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서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도서관 자료가 등장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남산도서관의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5 남산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1965	1982	2002	2007
1F				
	강당	강당	목책전시실	전시실
	사서과	사서과	자료봉사과	자료봉사과
	공구실, 목욕실	공구실, 목욕실	샤워실, 사무실	샤워실, 사무실
	청부숙직실	청부숙직실	기관실	사무실
	재고	재고	목공실	목공실
	석탄고	창고	유류탱크실	창고
	목공실, 창고, 사진실	직원식당, 식당, 주방, 창고	직원식당, 식당, 조리실, 매점	직원식당, 식당, 주방, 매점
	수위실	창고	관리과	관리과
	서무실	서무과		

2F				
	식당, 주방, 여자열람실	여자열람실	전자정보실	정보화실, 정보화관리소
	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실	연속간행물실	열람실, 일반열람실2
	발코니	발코니	목역휴게실, 흡연실	목역휴게실, 휴게실
	개인연구실(1)	특별연구실(1)	연속간행물실 서 고	서고
	개인연구실(2)	특별연구실(2)	회의실, 학교도서관지원과	학교도서관지원과
	열람과장실	열람과장실	이동문고사무실	이동문고사무실
	이동문고사무실	이동문고사무실	취업정보코너	취업정보코너
3F				
	제1열람실	제1열람실(성인)	어문학실	어문학실
	휴게실	특수자료실	문화활동지원과	문화활동지원과
	사회과학실	사회과학실	제2열람실	일반열람실2
	개인연구실	특별연구실	제1열람실	일반열람실1
4F				
	제2열람실	제2열람실(중고생)	인문,사회자료실	인문,사회자료실
	휴게실	중고생열람실	자연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2
	제3열람실	인문과학실		자연과학자료실1

		청소인휴게실	창고	창고
			독서회	서고사무실
5F				
	제4열람실	여자열람실	제4열람실	일반열람실4, 상담실(회의실)
		문학실	제3열람실	일반열람실5
	제5열람실	자연과학실		일반열람실3
		창고	서고사무실	서고사무실
		청소인휴게실	창고	창고

## 나. 프로그램 면적

1965년 개관 이후로 남산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전에 분석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배치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면적의 변화도 따랐다. 연면적 9,328m<sup>2</sup>로 개관한 남산도서관은 총 면적이 조금씩 변하여 현재 9,410m<sup>2</sup>이다.<sup>47)</sup> 1965년의 공간구성별 면적은 자료이용부분 2,527m<sup>2</sup>, 업무관리 1,621m<sup>2</sup>, 문화교육 479m<sup>2</sup>, 공용부분 644m<sup>2</sup>, 그리고 기타 부분이 644m<sup>2</sup>로 나타났다. 1982년도의 면적을 살펴보면 1965년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층의 식당이 여자열람실로 변경되고 3층 과 4층의 휴게실이 각각 특수 자료실과 중고생 열람실로 바뀌면서 자료이용부분이 3,016m<sup>2</sup>로 증가했다.

47) 본문에서는 편의상 면적을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다. 정확한 면적은 <표 4-3>에 정리하였으며, 이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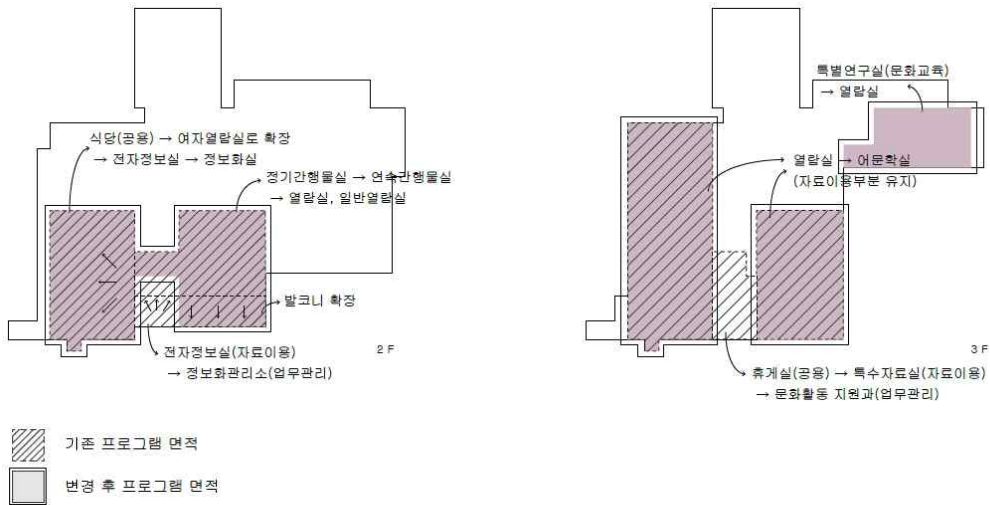


그림 4-5 남산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1층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신에 식당이 자리 잡고, 서무실 옆의 수위실이 없어지며 업무관리부분은  $1,298\text{m}^2$ 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문화교육부분은 명칭만 변경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식당의 위치가 바뀌며 면적이 소폭 감소하고 3, 4층의 휴게실이 없어지면서 업무관리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용부분 역시  $3,793\text{m}^2$ 로 줄어들었다. 1층의 창고와 변전실을 증축하여 기타부분도  $761.83\text{m}^2$ 로 소폭 증가하였다.

2층의 정기간행물실 뒤 발코니를 개조하여 정기간행물실을 확장하고, 3층의 특별연구실을 제1열람실로 바꾸며 2002년도 도면상으로 자료이용부분이  $3,212\text{m}^2$ 로 증가하였다. 또한 1층의 서무과는 자료봉사과로, 사서과는 관리과로 바뀌며 확장하였고, 2층의 특별연구실은 폐지되며 회의실, 학교도서관 지원과, 연속간행물실 서고가 되었다. 3층의 특수자료실이 문화 활동 지원과로 변경되며 업무관리부분도  $1,589\text{m}^2$ 로 넓어지게 되었다. 2, 3층의 특별연구실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교육부분은  $281\text{m}^2$ 로 감소하였다. 1층 식당 안쪽 창고가 있던 자리에 매점이 들어서고, 2층의 발코니가 없어지며 공용부분은  $3,763\text{m}^2$ 로 소폭 감소했으며, 창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뀔에 따라 기타부분도  $597\text{m}^2$ 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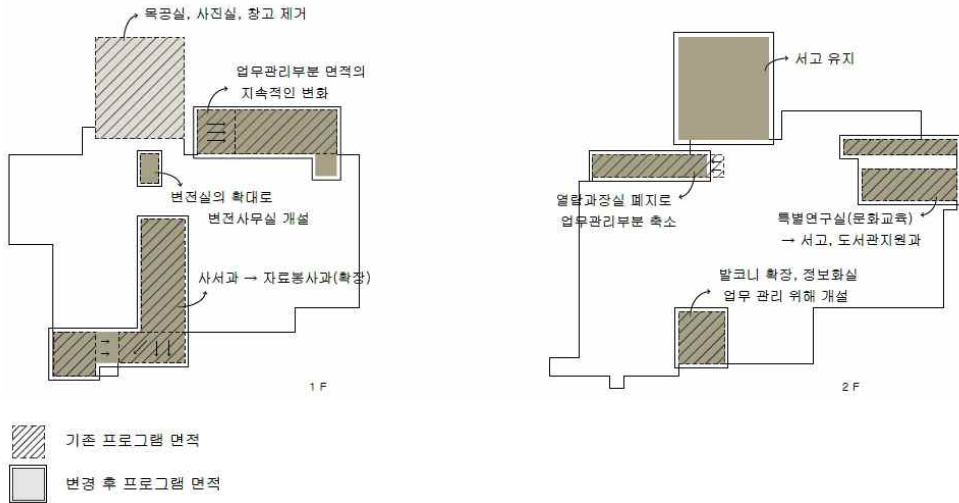


그림 4-6 남산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2층의 전자정보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 관리소가 생기고 5층의 일반열람실4의 일부를 상담실(회의실)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는 자료이용 부분이 2,934㎡로 감소하고, 업무관리부분은 1,835㎡로 증가하였다. 그 외의 프로그램의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면적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남산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sup>2</sup>)

	1965	1982	2002	현재
자료이용	2,527.14	3,015.87	3211.7	2933.7
업무관리	1,621.13	1,298.45	1588.79	1834.78
문화교육	479.16	479.16	281.3	281.16
공용	4,056.61	3,792.88	3763.25	3763.25
기타	644.15	761.83	596.72	596.72
합계	9,328.19	9,348.19	9,441.76	9,4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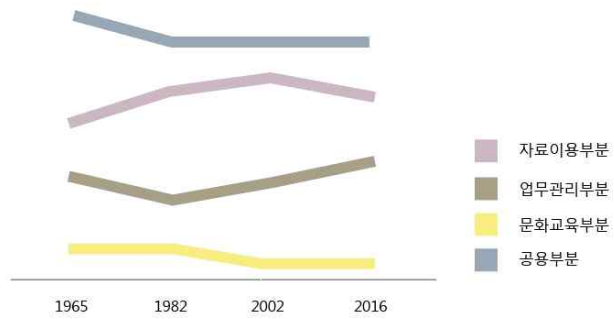


그림 4-7 남산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4.3.2. 수원선경도서관

#### 가. 프로그램의 변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사례 대상관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선경도서관의 시대별 배치도를 비교 분석했다. 수원선경도서관이 개관한 1995년부터 약 10년 주기로 2005년도와 2016년도의 배치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지하 1층의 경우, 이전 장에서 정의내린 도서관 공간구성부분 중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실과 전기실, 정화조 등과 같은 공간이 주를 이루었다. 개관 당시인 1995년에는 지하에 이러한 시설지원 기능의 공간과 더불어 식당, 매점과 주방이 위치해 있었다.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과 도서관 방문 이용객들이 머물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지상층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하 1층에 식당이 위치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 것이 식당 폐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식당의 공간은 선경도서관의 장서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존서고로 변경되었으며,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보존서고를 지하 1층에 식당 대신 배치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995년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참고·정기간행물실을 포함한 자료이용부분과 사무실 위주의 업무관리부분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담당, 서무담당, 사서담당, 그리고 2층의 열람담당으로 분산되어있던 사무실은 현재 1층에 위치한 정책과사무실과 2층 사무실로 통합, 정리되어 운영 중이다. 1층에서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많은 공간들이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강의실로 변경된 것과,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해 도서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버도서관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부분이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수원 선경도서관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기하급수적인 이용자수의 급증을 경험했다. 취업난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수험정보 제공을 위해 1층 전시실에 취업정보자료실을 개설했다. 더 많은 이용자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보다 나은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

1층의 주부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은 어린이열람실로 통합하고 참고·정기간행물실의 일부까지 확장하며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축소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열람실은 면적은 지속적으로 변했지만,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은 출입문에 가까운 1층에 배치하여 성인의 이용 동선과 분리되는 출입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경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은 입구에서 가까워 어린이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개관 당시부터 같은 위치를 지키고 있다.

1층의 참고·정기간행물실은 2002년도의 배치도 상에서 정기간행물실로 명칭이 바뀌며 면적이 축소되었다. 참고·정기간행물실이 정기간행물실로 바뀌고 면적이 축소하면서 어린이열람실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가 이후에 정책과사무실로 바뀌었다. 어린이열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기타의 모든 성인 자료실은 2층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주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정기간행물실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참고·정기간행물실이 정기간행물실로 명칭이 변경되며 2층으로 이동한 위치는 기존에 휴게실이 위치해 있었으나 공간부족으로 폐지되며 회의실과 열람담당 사무실로 변경이 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관리부분은 그와 인접해 있던 자료이용부분인 참고자료실과 향토 자료실과의 프로그램 연계성 또한 다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실의 이동으로 주변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계성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사료된다.

2층의 향토행정자료실은 향토자료실로, 문학·회원자료실은 참고자료실

---

4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2013, p. 46

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종합자료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2층의 인문사회 자연과학자료실과 문학·회원자료실이 통합되어 대규모 종합자료실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대규모 자료실이 가능한 것은 과거 폐가식 서고 중심에서 전면 개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료열람실의 통합, 확대되는 형태는 자료를 열람공간과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감소시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향토행정자료실은 향토자료실로 바뀌어 선경도서관이 경기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수원의 오랜 역사기록물을 저장, 보관하고 있다. 보관 자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2층에 위치했던 휴게실은 정기간행물실로 변경하였다.

한편,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개관한 수원선경도서관은 빠르게 대응하여 1996년 향토자료실 내에 전자정보자료실을 개설하였으나 환경이 열악하였다. 이후 2002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정보실과 음향자료실을 통합하고<sup>49)</sup> 3층에 자리한 제4열람실 위치에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였다. 현재 2층의 종합자료실의 일부가 되었다. 선경도서관이 개관을 했을 당시, 3층의 경우 제1열람실부터 제5열람실이 모두 위치해 있던 열람실 위주의 공간이었다. 협소한 공간의 제약으로 디지털자료실을 3층 열람실 공간에 개설하였으나 주위 열람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디지털자료실이 2층의 종합자료실 내부로 이동하였다. 도서관 방문객의 밀도가 높은 종합자료실에 위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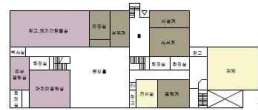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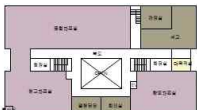
3층의 제3열람실과 제4열람실은 통합되어 수원학자료실과 일부는 서버실로 사용되고 있다. 제1열람실과 제5열람실은 명칭만 남자, 여자 열람실로 변경되었으며 제2열람실은 보존서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49) 수원선경도서관, 이전인용, 2015

되었다. 증가하는 장서량을 수용하기 위해 열람실을 축소하고 보존서고를 확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층마다의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4-7 수원선경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1995	2005	2016
B1			
	식당, 주방	식당, 주방	보존서고
1F			
	참고·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실	정책과사무실
	주부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열람실(축소)
	관장실	시설담당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무계	서무담당	경기도사이버 도서관 사무실
	시설계	강의실	강의실1
	사서계	사서담당	강의실2, 참고
	전시실, 열람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사이버사무실, 소장실
2F			
	인문사회자연과학자료실	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학·회원자료실	참고자료실	
	향토행정자료실	향토자료실	향토자료실

	휴게실	열람담당, 회의실	정기간행물실
	회의실	관장실	동아리실
	음향영상자료실	서고	사무실
3F			
	제1열람실	제1열람실	남자열람실
	제2열람실	제2열람실	보존서고
	제3열람실	제3열람실	수원학자료실, 서버실
	제4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제5열람실	제5열람실	여자열람실
	휴게실	휴게실	도시락실

## 나. 프로그램 면적

제한된 면적 안에서의 프로그램 변경에는 자연스럽게 각 프로그램 면적의 변화가 따른다. 도서관 연면적은 큰 변화 없이 8,312m<sup>2</sup>로 유지되고 있다. 선경도서관이 개관한 1995년도에는 자료이용부분이 3,767m<sup>2</sup>, 업무관리부분 727m<sup>2</sup>, 문화교육부분 397m<sup>2</sup>, 공용부분 1,770m<sup>2</sup>, 그리고 기타부분이 1,651m<sup>2</sup>로 확인되었다.

개관 당시 1층에 위치해있던 주부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이 2005년도 배치도 상에서 어린이열람실로 통합되며 기존의 참고·정기간행물실의 일부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2층의 음향영상자료실이 서고로 변경되며 2005년도에는 자료이용부분이 3,541m<sup>2</sup>로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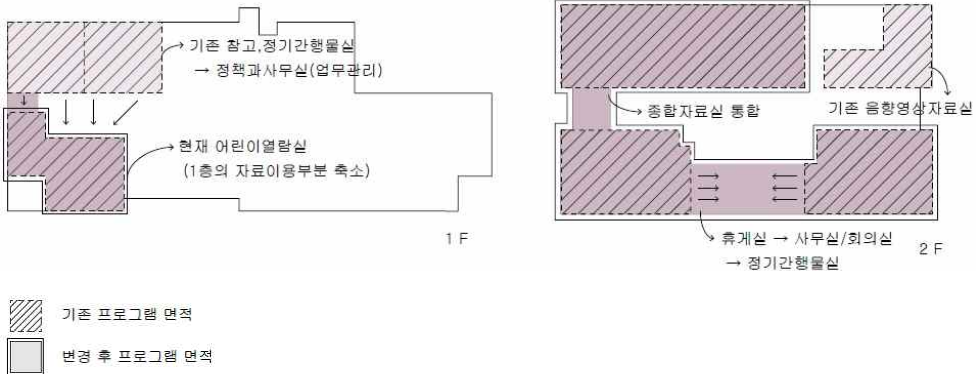


그림 4-8 선경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업무관리부분에 있어, 1층의 시설계 사무실이 문화교육부분의 강의실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기존의 전시실이 열람계와 통합하여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 사무실로 이용되고, 2층의 공용공간인 휴게실이 각종 회의실과 사무실로 변경되며 업무관리부분의 전반적인 면적은 증가했다. 2층의 음향영상자료실이 서고로 변경된 것도 업무관리부분 면적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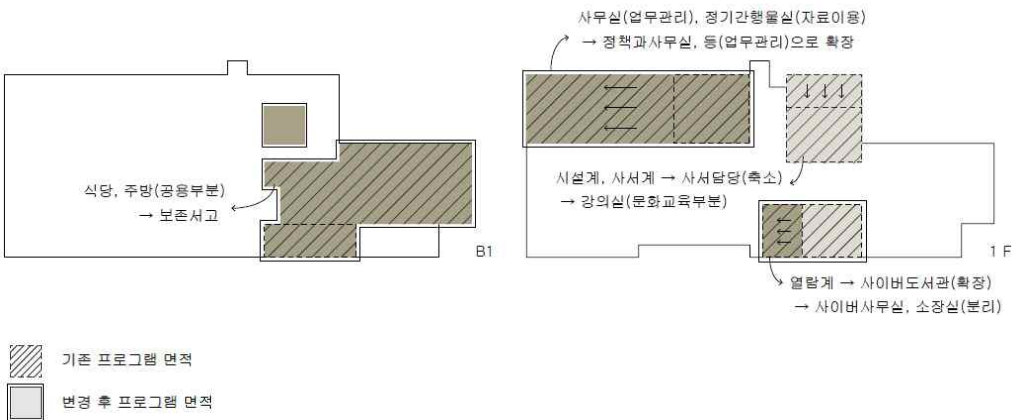


그림 4-9 선경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문화교육부분은 1층의 강의실과 2층의 기존 관장실 자리에 동아리실이 개설되며 현재 590m<sup>2</sup>로 증가하였다. 공용부분인 2층의 휴게실은 2005년 도에는 업무관리부분으로, 현재는 자료이용부분인 정기간행물실로 바뀌며 폐지가 되었다. 또한 지하의 식당과 주방은 그 이용이 점차 줄어들며

폐지되어 전체적인 공용부분의 면적이 1,109m<sup>2</sup>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위치와 그 면적이 바뀌며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은 자료이용부분의 면적 감소이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자료이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축소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2005년도 이후 어린이열람실이 축소되며 업무관리부분인 정책과사무실로 대체되었고, 3층의 제2열람실도 보존서고로 바뀌어 그 면적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면적 변화를 다음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표 4-8 수원선경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sup>2</sup>)

	1995	2005	현재
자료이용	3,766.59	3,541.23	3,191.35
업무관리	727.49	1,031.15	1,770.12
문화교육	396.69	418.375	590
공용	1,769.74	1,669.74	1,109.03
기타	1,651.48	1,651.48	1,651.48
합계	8,311.99	8,311.965	8,31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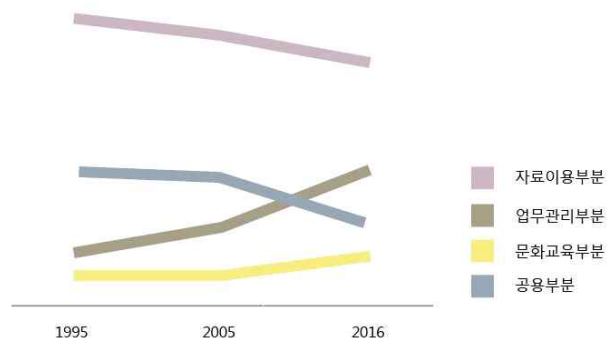


그림 4-10 선경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4.3.3.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 가. 프로그램의 변화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이자 대전의 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에서 도서관의 기능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도서관은 지명, 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선정된 설계안으로 건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립 당시 1989년에 작성된 설계 도면과, 약 20년 후인 2011년에의 도면을 비교 분석하였다.<sup>50)</sup>

한밭도서관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었다. 지하 2층에 개관 당시 위치했던 마이크로 필름실, 암실, 제작실, 그리고 보관실은 현재 통합된 공간으로 컴퓨터교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화의 도입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교실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자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도서관의 입구나 출입구가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sup>51)</sup> 그러나 한밭도서관의 컴퓨터실은 지하 2층에 위치하며,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관리 공간을 지나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 변화의 위치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편, 컴퓨터교실의 전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컴퓨터실은 행정 전산실로 변경이 되었고, 제작실은 축소되어 전산기계실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던 복사, 인쇄, 제본실은 창고, 영양사실, 그리고 매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인접한 식당 이용객의 편의

---

50) 대전한밭도서관의 경우, 설계 도면이 주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설계 당선안의 도면과 최근의 도면만이 남아있어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51)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인용, p. 53



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귀중본 서고는 축소된 면적의 건축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비군실은 기계창고로 바뀌어 기계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당시에 기계실 옆 공간에 위치했던 무기고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여 현재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기계실, 전기실, 창고, 발전기실, 그리고 업무담당부분에 해당하는 서고와 중앙감시실 같은 공간은 큰 변경 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서고와 사무실들을 포함한 각종 업무관리부분과 아동열람실, 점자열람실, 음향 및 어학열람실, 자료실 등의 자료이용부분이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아동열람실은 개관과 동시에 개설하였으며, 이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서 코너를 마련하며 다양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아동가족열람실로 개칭했다. 2008년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점자열람실 일부와 통합되며 재개설 하였다.<sup>52)</sup> 아동과 동반하는 보호자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수용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라고 사료된다.

개관 당시 지하1층에 위치해 있던 점자 열람실은 1990년 시각 장애인실로 변경, 개설하였다. 이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항을 추가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프로그램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서정리 분류실은 축소된 면적의 정리담당으로, 수서실과 수서과 사무실은 없어지며 회의실로 통합, 변경되었다. 공간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향하기 위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아동도서실은 수집담당으로, 소독실과 귀중본 자료실은 이동도서관실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의 배치도 상의 지하 1층 소독실이나 수서과 사무실과 같은 공간은 다른 실을 거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거나 없애며 복도 면적을 확보하며 개선되었다.

이외에도 휴게실은 행정동우회로, 시청각열람실은 동아리방으로 변경

---

52)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이전인용

되었는데 이는 지역문화시설로써의 기능 수행 결과물로 보인다. 음향 및 어학열람실은 도서관 체험학습실과 집중 학습실로 바뀌었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학습실은 자료실과 가깝고 출입구나 아동자료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간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53)</sup> 프로그램 변경 이후, 학습실의 위치는 아동가족열람실과 떨어져 있고 지하 1층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밭도서관의 경우 2층부터 4층에 자료이용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의 자료이용공간이 없어지고 위층의 종합자료실로 흡수된 것은 프로그램 연계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숙직실, 기사대기실, 통신 교환실 등의 기타, 업무관리부분은 명칭만 바뀌거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층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2002년에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센터의 개실이다. 건물로 진입하여 위치한 로비를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에 위치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 대규모 디지털정보센터로 변경하였다. 대출실 자리에는 원문자료DB 검색코너, 무선랜코너, 도서목록 검색부스, 그리고 디지털자료 봉사실이 생겼다. 기존의 래퍼런스 자리에는 A.V.관이, 목록실, 전적실, 그리고 복사실의 위치에는 정보검색실이 개실하였다. 향토자료 전시실에는 멀티미디어 연수실이, 향토자료 열람실 위치에는 영상음향실이 자리잡게 되었다. 개관시에는 통합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향토자료 전시실과 열람실은 음향시설의 소음발생으로 공간이 분리되었다. 로비의 서쪽에 위치했던 신문잡지 열람실은 전시실로 변경되어 각종 전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실이나 다목적실의 경우 도서관 입구의 현관, 홀을 이용하여 배치하도록 권유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참고했을 때, 적합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54)</sup> 비서실은 부속실과 창고로 변경되어 인력의 축소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총무관계실을 관리과로, 열람과사무실은 축소되어 도서관정

53)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인용

54)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인용

책 담당으로 변경되었다. 매표소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며 비도서 서고로 바뀌었다.

한밭도서관은 개관당시 1층의 대출실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직원이 찾아주어 안내 열람이 가능한 폐가제로 운영을 하였다. 2층부터 4층은 열람실이 집중된 공간이었다. 3개층 모두 공조기계실과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간이 자유열람실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7월 22일부터 1층의 대출실을 없애고 2층의 참고열람실과 제1열람실로 운영하던 2개실을 통합하여 제1자료실로 이전하면서 전면 개가제를 실시하였다. 열람실을 통합하여 대규모화함으로써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자유열람실은 정기간행물실로 운영 중이며, 한 곳은 제3자료실로 변경되었다. 제3자료실은 1992년에 개설한 행정자료실에 있던 논문, 참고열람실과 향토자료실에 있던 자료들을 모아 개설하였다.<sup>55)</sup> 또 다른 자유열람실은 노인 계층을 위한 전용실로 변경하여 일찍이 지식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 외의 자유열람실은 자료운영과(열람, 대출담당)로 변경하여 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층은 2층과 마찬가지로 자유열람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큰 자유열람실은 2003년 제2자료실로 변경되었다. 제2자료실은 참고자료파트와 복본 학습자료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자료 열람과 개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자료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한 부분이다. 나머지 자유열람실 4곳은 각각 제1열람실, 제2열람실, 제1성인열람실, 그리고 제2성인열람실로 명칭만 변경되었다.

4층 또한 열람실 위주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었다. 열람실 모두 자유열람실에서 제3열람실, 제4열람실, 제3성인열람실, 그리고 제4성인열람실로 개칭되었다. 제3열람실과 제4열람실의 경우 복층 구조를 하고 있어 충분한 면적 확보를 하고 있다. 제3열람실의 일부는 개인 컴퓨터 이용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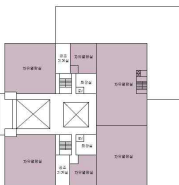

---

55)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이전 인용

을 위한 노트북코너로 사용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4-9 대전한밭도서관의 시기별 프로그램 변경사항

	1989	2011
B2		
	마이크로필름실, 암실	컴퓨터교실
	제작실, 보관실	
	컴퓨터실	행정전산실
	제작실	전산기계실(축소)
	복사, 인쇄, 제본실	창고, 영양사실, 매점
	귀중본서고	건축창고(축소)
	창고	전기창고
	영선 및 중앙감시실	시설담당 중앙감시실
	예비군실	기계창고
	무기고	
B1		
	아동열람실, 전자열람실	아동가족열람실
	전자열람실	시각장애인실(축소)
	수서정리분류실	정리담당(축소)
	수서과사무실, 회의실	회의실
	소독실, 귀중본자료실	이동도서관
	아동도서실	수집담당

	수서실	
	숙직 및 방제실	숙직실, 여자휴게실
	휴게실	행정동우회
	사무실	문서실
	기사대기실	용역대기실
	자료실	
	시청각열람실	동아리방
	음향 및 어학열람실	도서관 체험학습실(축소)
	자료실	집중학습실
1F		
	열람과사무실	창고, 도서정책담당(축소)
	대출실	각종 디지털자료실
	래퍼런스	A.V. 관
	목록실, 복사실, 전적실	정보검색실
	향토자료열람실	영상음향실
	향토자료전시실	멀티미디어 연수실
	총무관계실	관리과
	비서실	부속실, 창고
	신문잡지 열람실	전시실
	매표소	비도서 서고
2F		
	자유열람실	제1자료실

	자유열람실	
	자유열람실	청록실
	자유열람실	자료운영과
	자유열람실	제3자료실
	자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3F		
	자유열람실	제2자료실
	자유열람실	제1성인열람실
	자유열람실	제2성인열람실
	자유열람실	제1열람실
	자유열람실	제2열람실
4F		
	자유열람실	제4열람실
	자유열람실	제3성인열람실
	자유열람실	제4성인열람실
	자유열람실	제3열람실
	자유열람실 (복층)	노트북코너

## 나. 프로그램 면적

대전 한밭도서관도 이전의 분석 사례 대상관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연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이 내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각 공간구성별

면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관 초기인 1989년의 전체적인 면적을 살펴보면, 자료이용부분이 7,909m<sup>2</sup>, 업무관리부분 3,636m<sup>2</sup>, 문화교육부분 309m<sup>2</sup>, 공용부분 4,480m<sup>2</sup>, 그리고 기타부분이 2,750m<sup>2</sup>로 나타났으며 전체 면적은 19,079m<sup>2</sup>로 3개의 사례 대상관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이고 있다.

자료이용부분 면적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지하1층의 프로그램 변화이다. 자료실, 시청각열람실, 그리고 음향 및 어학열람실이 동아리방, 도서관 체험학습실과 집중학습실인 문화교육부분으로 바뀌었다. 또한 아동열람실에 인접해 있던 귀중본자료실이 이동도서관 사무실로 변경이 되었고, 기존 이동도서관 사무실이 수집담당인 업무관리부분으로 변경되며 자료이용부분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1층의 대출실과 목록실, 향토자료실과 전시실은 2002년의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정보센터로 전면 교체되며 자료이용부분 면적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기존의 신문잡지 열람실이 전시실로 바뀌어 전체적인 자료이용부분 면적의 축소를 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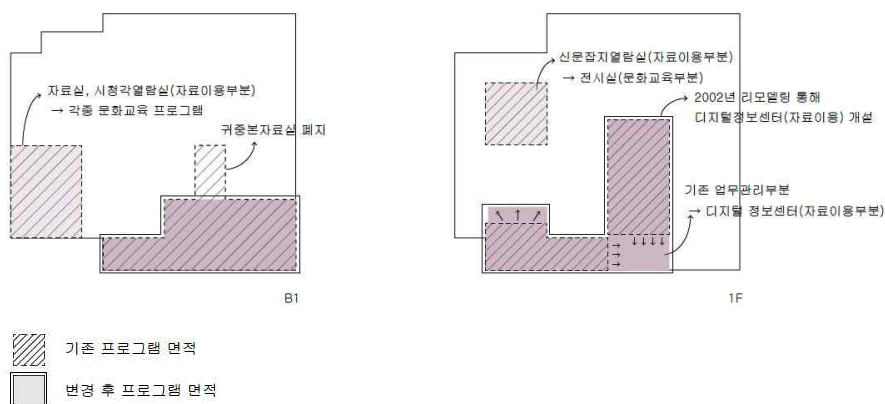


그림 4-11 한밭도서관 자료이용부분 면적 변화

업무관리부분은 전반적인 재배치와 작은 사무실들이 통합되어 정리된 양상을 보인다. 지하2층의 복사, 인쇄실, 제작실, 보관실, 그리고 귀중본서고와 같은 공간은 모두 없어졌다. 또한 지하1층에서도 직원 휴게실, 소독실, 수서과사무실 등과 같은 업무관리부분이 많이 폐지되었지만 사

무실이 통합,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면적은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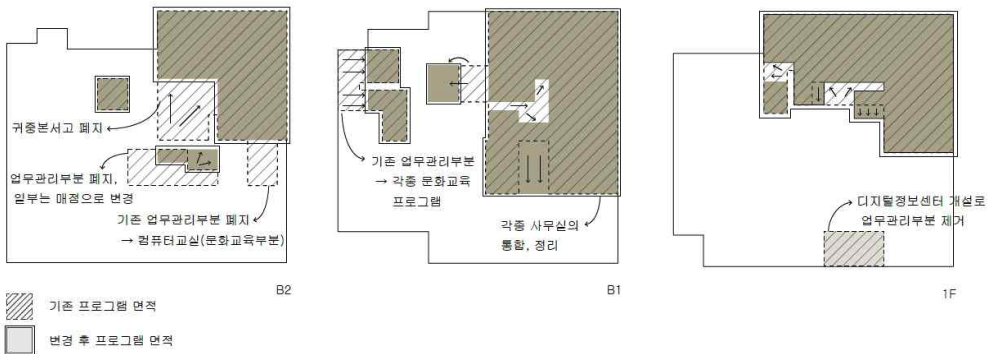


그림 4-12 한밭도서관 업무관리부분 면적 변화

대전한밭도서관은 문화교육부분의 면적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개관시에는 지하 2층에 마이크로필름실과 암실 같은 소규모의 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만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지하2층의 컴퓨터교실을 포함하여 지하1층의 각종 학습실, 동우회실, 그리고 1층의 전시실까지 개설되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밭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된 것과 공공도서관이 자료의 이용과 제공이라는 단편적인 기능에서 공공의 문화교육의 책무를 흡수하며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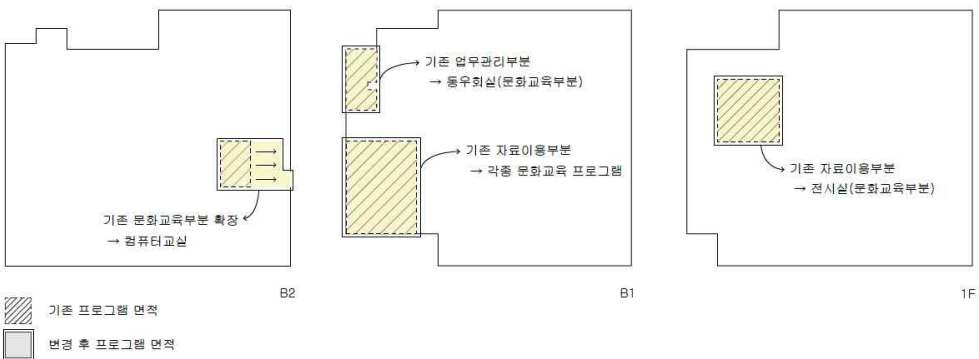


그림 4-13 한밭도서관 문화교육부분 면적 변화

그 외의 휴게실과 식당과 관련된 공용부분과 각종 시설관리를 포함한 기타부분, 그리고 2, 3, 4층의 자료이용부분은 큰 변화 없이 그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밭도서관의 면적 변화를 다음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표 4-10 대전한밭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단위: m<sup>2</sup>)

	1989	2011
자료이용	7,908.86	7,041
업무관리	3,635.69	3,804.56
문화교육	309.38	913.38
공용	4,480.06	4,570.06
기타	2,750	2,750
합계	19,079	19,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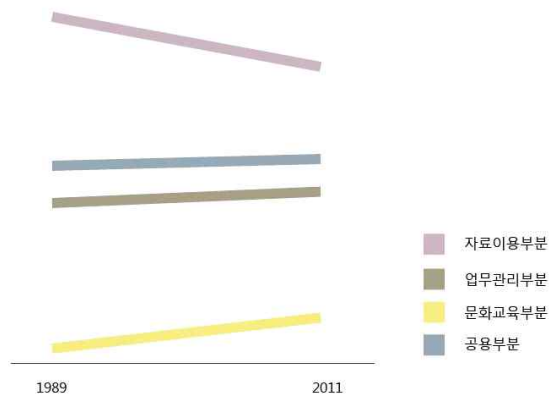


그림 4-14 한밭도서관의 프로그램 면적변화

## 4.4. 소 결

이상으로 각 사례 대상관의 프로그램 배치와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세 대상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공간 구성별 면적으로는 자료이용부분은 자료실과 열람실의 축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사무실이 늘어나며 업무관리부분은 증가하였다. 문화교육부분은 특별 연구실의 폐지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공용부분 또한 휴게실이 자료이용부분이나 업무관리부분으로 대체되며 감소하였다.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성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도면상에서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같은 층에 밀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선경도서관의 경우, 보존서고를 포함한 기타 업무관리부분의 상당한 면적이 열람실부분을 대체함에 따라 자료 이용부분이 감소했다. 또한, 개관 때에는 없었던 동아리실과 강의실이 개설되며 문화교육부분의 면적이 증가했고, 지하층에 위치했던 식당의 활용도가 떨어져 없어지면서 공용부분 면적이 감소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치 변화를 통해 저층부에는 문화교육부분과 각종 사무실이 밀집되었고, 자료이용부분은 2, 3층에 집중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개의 사례 대상관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대전 한밭도서관은 다른 사례 대상관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자료이용부분은 학습실, 동아리실, 동아리실과 같은 문화교육부분으로 일부 대체되며 그 면적이 감소하였다. 업무관리부분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 정리되며 소폭 증가하였다. 공용공간은 같은 프로그램이 배치만 바뀌며 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한밭도서관의 작고 세분화되어 있던 면적이 통합, 정리되며 상호연계성이 더욱 긴밀해졌고, 다른 공간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남산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그리고 대전한밭도서관은 변화해온 과정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

첫째, 세 도서관 모두 개관 이후 디지털자료실, 장애인 열람실(혹은 코너), 그리고 문화시설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프로그램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이용부분의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관리부분의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넷째, 새로운 기능의 공간이 개설될 경우 휴게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 기계실, 전기실과 같은 기타부분은 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작고 세분화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고 대규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5. 결 론

## 5. 결 론

과거 도서관은 기록을 수집·보존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산업혁명과 인쇄술의 발명을 통한 기록의 대량생산으로 대중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즉 이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도서관의 기능도 소장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각종 문화, 교육 관련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이용자를 적극 수용하며 문화시설로써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도서관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변화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열람제도와 같은 자료 이용환경의 변화,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이용자 행태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산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료이용환경의 변화가 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례 대상관을 통해 분석해보고, 향후 도서관의 효율적 공간 운영을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이용 환경의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서울남산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그리고 대전한밭도서관의 평면도를 이용하여 개관년도를 기준으로 각 10년 또는 20년의 단계에 걸쳐 공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산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배치가 변경되며 각 공간구성별 면적에도 변화가 있었다.

둘째, 선경도서관은 프로그램의 이동과 폐지, 공간의 통합으로 면적이 꾸준히 변화했다.

셋째, 대전한밭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공간을 통합, 정리하면서 배치와 면적이 변화했다.

넷째, 세 개의 대상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변화의 양상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열람공간, 디지털자료실, 각종 문화시설이 추가된 것, 자료이용부분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것, 반면 업무관리부분이 증가한 것, 공간이 부족할 경우 휴게실과 같은 공용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기타부분의 면적은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자면, 세 개의 사례 대상관이 모두 개관 이후 디지털자료실, 장애인 열람 공간, 그리고 문화시설이 추가되었는데, 장애인 열람실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이를 규정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한밭도서관) 혹은 소극적으로라도(남산도서관과 선경도서관) 지식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열람실의 경우, 제3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보화의 추진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자료의 제공을 넘어서 문화교육과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각종 문화관련 공간이 추가되었다. 둘째로, 이렇게 자료이용부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이용부분의 면적이 세 도서관에서 모두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자료의 보존과 수집의 역할이 중심이었던 도서관의 기능이 점차 변화하여 추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이용부분과는 반대로 업무관리부분의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자료이용부분이 감소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공공의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며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제공과 문화 교육, 지식 격차의 해소 등 그 책무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지원할 부서들과 인력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고(업무관리부분으로 분류) 면적의 확대도 업무관리부분 면적 증가를 야기했다. 넷째로, 새로운 기능의 공간이 개설될 경우 휴게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한된 면적 안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게 되어 다른 프로그램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공간에도 우선순위와 위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의 도모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나 식당과 같은 공용부분을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초기 설계 단계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기계실, 전기실과 같은 기타부분은 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작고 세분화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고 대규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주로 자료실과 열람실에서 나타났는데 공간의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식, 이용환경, 이용자의 행태 변화 그리고 정보화의 추진과 같은 자료이용환경의 변화와 공공도서관의 평면구성 변화의 연계성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와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도서관의 공간을 변화시켜왔다. 즉, 도서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하며 과거 자료보존의 중심에서 이용자의 중심으로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따라 공간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을 세 개관으로 제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사례 대상관 분석을 통해 일반화가 가능한 이론적 고찰은 후속 연구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1) 국내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3.
-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 80년사』, 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변천』, 2000
- 수원선경도서관, 『선경도서관20년』, 2015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20년사』, 2010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 강예린, 이치훈, 『도서관 산책자』, 반비, 2012.
- 『정보화특별교육교재』, 국립중앙도서관, 200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2013

#### (2) 국외서

- 브뤼노 브라셀, 『책의 역사』, 시공사, 1999.
- Roy MacLeod, 『The Library of Alexandria』, 2000.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14.  
Public Library Association Strategic Plan 2014-2017, 2014. pp.  
3-4. [online] [cited 2016. 11. 9]  
<http://www.ala.org/pla/about/strategicplan>
-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9. Public Library  
Space Needs: A Planning Outline / 2009. p. 3. online. [cited  
2016. 11. 9]  
<http://dpi.wi.gov/sites/default/files/imce/pld/pdf/plspace.pdf>
- Stanford University Library. 2000. Public Library Space Needs  
and Alternatives Study.



## ■ 논문

### (1) 국내 학술지 논문

- 박철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49-167, 2005
- 김희정, 이정수, 「디지털 자료 활용실 수용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8), 91-98, 2009
- 고재민, 조현양, 고흥권, 「도서관 소요공간에 따른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6(3), 349-379, 2013
- 김홍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0(1), 115-132, 2009
- 조우리, 최춘웅,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36(2), 284-285, 2016

### (2) 국내 학위 논문

- 고흥권, 「公共圖書館 스페이스프로그램의 模型 提案 研究: 2000년 이후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2-4, 2002
- 김정희,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7

## ■ 기타

- 보스턴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www.bpl.org/general/history.htm](http://www.bpl.org/general/history.htm)
-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2009년 9월 26일 시행
-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2016년 8월 4일 시행
- 법제처,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년 11월 28일 시행
-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Library buildings and spaces. online [cited 2016. 11. 9]  
<http://www.sl.nsw.gov.au/public-library-services/library-buildings-and-spaces>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2016
- 「한겨레신문」, 1994.11.09
- 「동아일보」, 1998.01.19
- 「매일경제」, 1997.12.04.
-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ndli/index.jsp?LOGSTATUS=notok&NLSSOTO KEN=>

## ABSTRACT

### Research on Space Composition Based on Changes in Functions of Public Library

Cho, Woorie

Advised by Prof. Choi, Choon W.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hanges in public library in terms of its functions and social role. Originally, the public library was built to preserve books and other written media for the upper class. However,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mass-printing techniques, the libraries became considerably accessible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storage media is constantly evolving to this day due to the advent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se factors have ultimately led to changes in space composition of libraries and as a result, many public libraries are changing their social role as multi-purpose community centers to embrace more library us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social and public demand affected public libraries in regards to program configuration and space composition.

Through a specific selection criteria, three case study libraries from different regions were chosen in this research: *Seoul Namsan Public Library*, *Suwon Sunkyung Library*, and *Daejeon Hanbat Library*. Starting from the opening year, the changes in the spatial composition of each library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floor plans from different time period.

*Namsan Public Library* is the first public library built in Seoul, and it was originally built as *Kyungsung Prefectural Library*. Since its opening, considerable changes were made in the floor plans from 1965, 1982, 2002, and 2015. Because the public library absorbed additional roles that were generated from society and public requests, the area of reader space decreased as part of it became the staff work space. Common space also decreased due to the removal of public lounges.

*Suwon Sunkyung Library* showed similar changes in its program areas as *Namsan Library*. Its reader space area decreased while the staff work space and book storage increased. As seminar rooms were added to the library, culture and education space was expanded while the common space was reduced since the underground dining hall was removed.

Reader space of *Daejeon Hanbat Library* decreased relatively less. This is mainly because reader space was replaced with culture and education space as new programs were established. Space for the staff work that was originally divided into several small offices tended to become integrated into a bigger space.

Changes that appeared in common are the followings:  
Even though all three libraries added new programs, including computer lab and reading room for the disabled, the overall

reader space decreased while the staff work space increased in its area. This is because the public library took on new social roles and functions to become a mixed purpose community center and as a result, old programs were removed due to the limited area of the floor plan. Common space was removed first when these changes occurred.

In sum, through analyzing floor plan changes of three Korea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library space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cognition, reading environment, user behavior, and computerization. Likewise, this relationship found in public libraries will constantly adapt and evolv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society.

---

**Keyword:** Korean Public library, Libray space, spatial composition, program configuration, Seoul Namsan Library, Suwon Sunkyung Library, Daejeon Hanbat Library

**Student Number:** 2015-21121